

“부처님과 함께해 심장이 고동치다”

불교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불자 108인 수행담 엮어



불교와 나의 삶
불교여성개발원 엮음
해조음 펴냄
8000원

“평생을 하루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히 살다가 손에 가진 모든 것을 하나, 둘 내려놓고, 언젠가는 떠나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 자신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돼 행복합니다.” (본문 122쪽)

분주하고 반복되는 일상. 사람들은 이런 삶의 연속에 점점 지쳐만 간다. 누구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꿈꾸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바람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각박한 삶 속에서도 가정과 사회에 자비를 베풀며, 자신들의 인연을 소중히 가꾸 스스로의 삶을 성숙시키는 이들이 있다. 여성불자 108인이다. 최근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제4차 여성불자 108인 중 42인의 수행담을 담은 《불교와 나의 삶》을 발간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9년 경제 교육연구보건의료 언론출판 정치 교계단체 자원봉사 포교신행 문화예술 등 11개 분야에 종사하는 대표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해 제4차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했다.

책에는 불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 불자들이

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불교와의 인연을 비롯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불교수행을 실천하고 있는지, 불교를 통해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 각자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제4차 여성불자 108인으로 선정된 이주현 해조음 출판사 대표는 책에서 “일체 현상이 나와 하나 되는 순간 ‘이와 같이 들었다’의 거대한 의집이 내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케 했다. 삼천년 전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나에게도 ‘이와 같이 들었다’는 나도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부처의 존재감이 살갓을 파고들며 위대한 초월자의 마음과 밀착하는 순간 ‘이와 같이 들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무너짐과 열림이 동시에 전개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체감이 눈물을 쏟게 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하면서 따뜻한 감성으로 저비사상과 자신들의 수행을 실천하는 이들의 모습은 또 다른 여성 불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특히 자신이 속한 사회적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법을 전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한 여성 불자들의 모습은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선사한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애주 원장은 “여성불자 108인들은 책을 통해 다원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불교의 중흥과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불교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빛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책은 단순히 이들의 거창한 업적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다양한 위치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돋보인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서재탐방 | 윤창화 민속사 대표

“‘사기’ 읽으며 미래 꿈꿨죠”

史記

불교학술서·불교경전·불교입문서 등 불교 전문 서적을 출판하는 민속사 윤창화 대표(59).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아도 좋으니 제대로 된 불교개론서를 만들어 보급해야겠다는 일념 하에 외길인생을 걸어온 지도 벌써 올해로 32년째다.

지금까지 600여 권의 불교 서적을 펴낸 윤창화 대표는 “양서(良書)를 만들려면 출판인들도 항상 공부를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윤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있는 9000여 권의 책 가운데 그가 읽은 책들에는 ‘포스트 잇’ 등이 덕지덕지 붙여져 있다. 좋은 글귀를 오래도록 보기위해, 또는 다음에 공부할 때 쉽게 찾아 보기위해 그가 표시해 둔 것이다.

강원도 진부 두메산골에서 자란 윤창화 대표는 14세 무렵 초등학교를 마친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탄허 스님이 계신 월정사로 향했다. 처음에는 “어머니 말대로 한문공부만 하다가 나와야지” 했었다. 그러나 탄허 스님을 모시고 《화엄경》을 비롯해 《논어》 《장자》 《도덕경》 등을 배우면서 한문과 경전 공부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고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고 스님이 됐다. 그러다 윤 대표는 22세(1974)가 되던 해 겨울, 탄허 스님을 모시고 대원사에서 《화엄경》 간행본사에 매진하고 있을 때 그의 가지관을 정립시켜준 책을 만나게 된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가운데 백미만을 모은 《사기열전(史記列傳)》이라는 책이었다.

“... 작구명은 실명(失明)함으로써 국어(國語)를 저술했고, 손자(孫子)는 다리가 잘림으로써 병법(兵法)을 편찬했으며... 한비자는 진나라에 감함으로써 세난(說難), 고본(孤憤) 두 편이 쓰여 질 수 있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윤 대표는 온 몸이 오싹하면서 소름이 돋아 머리끝이 솟아올랐다.

“제 머리통은 뒤죽박죽이 되었죠. 꼬박 3일 동안 이 책을 붙잡았어요. 삶에 대한 가치관을 놓고 생애 최초로 일대 회전을 치렀습니다. 20~30대에 난처한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이 책을 읽었어요. 현실의 급급함에서 벗어나 먼 미래를 꿈꿀 수 있었거든요.”

윤창화 대표는 “《사기(史記)》는 인간의 삶이란 참으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며 “뜻과 고난 없이 이루어진 삶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아내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서 1979년에 환속한 윤 대표는 탄허 스님 밑에서 배운 출판 업무를 살려 이듬해 1980년 민속사를 설립했다. 당시 불교관련 서적이라고 해봤자 스님들의 수필집과 시집 또는 법문집이 대부분이라 읽을 만한 불교 개론서와 입문서가 전무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때였다.

윤 대표는 ‘불교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무장된 불자들을 양성하고 싶다’는 생각에 불교학술서를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초판 1000권을 찍은 책이 15~20년이 걸려도 다 판매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힘든 여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표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민족문화추진회에 들어가 3년간 《사서삼경》 《경국대전》 등을 공부하고 한문을 배우는 등 학문에 매진했다. 한문(漢文)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불교를 공부할 수 없



좋은 불교 학술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민속사 윤창화대표는 늘 공부를 한다. 그가 읽고 공부한 책에는 항상 메모지가 붙여져 있다.

고난없이 이루어진 삶 의미없음 깨달아 독서를 할 때는 즐기고 흥미하며 읽어야

고 좋은 불서를 선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윤창화 대표는 민족문화추진회와 탄허 스님 밑에서 키운 학문적 역량을 토대로 현재까지 민속사에서 나온 600여 권의 학술서를 꼼꼼히 읽고 교정·검수를 한다.

현재는 중국선의 실제적인 모습의 고찰을 통해 한국 선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중국선과 선원정규 자료들을 탐구하고 있다.

윤창화 대표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법구경》 《아함경》 《논어》 사마천의 《사기열전》 장주의 《장자》, 인도의 고전 《바가바드 기타》,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 요시다 겐코의 《도연초(徒然草)》, 선어록인 《임제록》 등 고전들을 인생의 보물로 여긴다고 했다.

윤 대표는 “9권의 책만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장주의 《장자》를 읽고 권력, 출세, 명예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저열하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깨달았고 《바가바드 기타》를 읽으며 복잡한 인간의 감성이 순수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 대표는 또한 “중국의 석학 임어당이 저술한 《생활의 발견》은 훌륭한 인격을 이루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라며 “요즘 출판되는 책 만권을 능가할 정도”라고 극찬했다. 이 밖에 윤 대표는 1300년대 일본 스님인 요시다 겐코가 쓴 수필 《도연초》를 동서고금을 통틀어 최고의 수필로 꼽았다.

지금까지 좋은 학술서 만을 내겠다고 고집해온 윤 대표였지만 요새는 관심 가는 분야가 생겼다. 바로 응용불교와 마음공부, 명상과 관련된 분야다. 윤 대표는 경쟁

시대를 살면서 스트레스와 허무를 느끼는 대중들이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책 만들기를 모색하고 있다.

윤창화 대표는 “앞으로는 폭넓은 불교 교양서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지만 대중 불자들에게 정확한 불교 지식을 전달하는 책 만드는 것은 계속 될 것”이라며 “책만 많이 읽는 지식인보다는 책을 읽고 흥미할 줄 아는 성찰하는 지성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생애포커스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돌
4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보경	조계종출판사
5	마음수업	이광정	휴
6	무문관 참구	장휘옥, 김사업	민속사
7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남
8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불광출판사
9	젊은 날의 깨달음	헤민	클리어마인드
10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 불서출판 윤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 3672-7181

누구나 놀이처럼 즐기는 명상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의 명상법



미국 UCLA 명상수업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 지음
이종복 옮김
웅진 펴냄
1만5000원

아이만 갑자기 울고 떼를 쓴다거나 괴팍한 행동을 보일 때,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똑같이 화를 내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책의 저자인 명상 지도자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는 아이들에게 스노우 볼을 보여주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도록 가르친다.

저자는 남편·아이들과 함께 명상 지도자

책 콘필드와 조지프 골드스틴이 안내하는 불교명상법을 터득한 후, 명상이 아이들에게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 후 저자는 미국 ABC방송의 잘나가던 변호사 자리를 관두고, 명상 교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책은 저자가 UCLA대학교 공동개발한 이니키즈 명상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주의집중법을 알려주고 있다. 놀이, 노래, 그림, 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의집중법을 키워나가고, 그 속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식이다. 4~17세까지 누구나 놀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명상법은 아이들이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법정 스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 사람들

법정, 나를 물들이다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꽃은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다 모두 내맡긴다.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

변택주 지음 | 352면 | 15,000원

화해

내안의 아이 치유하기

《화》 이후 9년, 틱낫한 스님 마음 치유 이야기의 결정판!

“당신 안의 아이와 화해하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240면 | 13,000원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 3672-7181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언제 어디서나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본격 생활명상 입문서! 숨 쉬고 걷고 울고 화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상이 곧 명상

책 콘필드 지음 | 추선희 옮김 | 156면 | 12,000원

도법 스님의 화엄경 보현행원공 강의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날마다 좋은 날 만드는 10가지 방법 3만 리를 걸으며 8만 명의 사람을 만나 도법 스님이 깨달은 생활을 위한 지혜

도법 지음 | 280면 | 13,800원

무비 스님이 전하는 이 시대 희망의 메시지

당신은 부처님

“마음이 부처라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몸이 부처다. 깨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부처인 시대가 왔다. 지금 부처로 살지 않고 어느 세월에 부처로 살겠는가?”

무비 스님 지음 | 168면 | 9,000원